

| 발행인 | 양경석

| 발행일 | 2025년 9월 29일

| 발행처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

www.snyouth.or.kr

SN.UTH

이슈 페이퍼

ISSN 2671-8294

“연령을 넘어 과업으로”

- 성남형 청소년-청년 생애과정(Life Course) 지원 모델 -

“본 모델은 청소년·청년을 연령이 아닌 연속된 발달·전환 과정(Life Course)으로 이해하고, 이에 기반한 과업 중심 맞춤형 지원체계를 제시함”

▶ 연령 확장의 흐름과 과업 전환의 필요성

- 청소년과 청년은 법령상으로 구분되어 연령 기준에 따라 각기 다른 정책 체계 속에 놓여있음. 그러나 실제 청소년기 발달 과업과 청년기의 전환 과업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개인의 성장 경로를 형성함.
- 최근 청년정책은 법령, 조례를 통해 지원 연령을 최대 39세까지 확대하며, 수혜 범위를 넓혀 왔으나 단순히 연령 확장만으로는 실제 삶의 변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동일한 연령대라도 개인의 삶의 상태, 필요, 전환 시기는 크게 다름.
- 이에 청소년-청년을 연속된 생애과정(Life Course) 속에서 중요한 과업(Task) 구분과 달성 단계에 따라 지원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함.

* 생애과정(Life Course) : 연령대별 고정된 단계를 넘어 개인이 겪는 사건과 맥락, 과업 달성 과정을 중심으로 지원을 설계하는 접근

▶ 왜 과업 기준의 지원이 필요한가?

- 청소년의 경우, 대체로 발달 과업이 유사하여 연령 기반 지원이 일정 부분 타당성을 가지나, 반면, 청년기는 같은 나이라도 과업 성취 수준이 다양하여 필요한 지원의 내용과 강도가 크게 달라짐.
- 과업 기준 지원은 정책 자원을 효율적·형평성 있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한정된 자원을 단순 연령별 분할이 아닌 “주요 전환 과업(Gate)”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실질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음.

▶ 성남형 청소년-청년 생애과정 지원 모델의 구조

- 청소년기는 발달 과업(Developmental Task: 진로 탐색, 심리 정서, 사회성)을 중심으로, 청년기는 전환 과업(Transition Task : 취업, 주거, 자립, 가족 형성 등)을 기준으로 통합적 설계
- 단계(Gate:전환 과업)는 G0(9~12세)~G6(성인 초기 정착)까지, 설정하며, 주요 전환점은 ①고교 졸업(G2→G3), ②취업 및 안정(G3→G4), ③가족 형성(G5→G6)으로 규정함.
- 단계별 과업 달성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연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

▶ 성남형 청소년-청년 생애과정 지원 모델의 의의

- 지원 근거를 “OO 세”가 아닌 “실제 과업과 역량(G 단계)”으로 전환함으로써 연령 확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지원 공백 해소
- 발달 과업(청소년)과 전환 과업(청년)을 연계하여 실질적 지원을 통해 중복·단절 없는 체계적 정책 설계
- 연속성과 맞춤성을 갖춘 현장형 실행 모델로서, 청소년·청년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언

청소년-청년을 잇는 생애과정 기반 정책 구조화의 필요성

〈연령 중심 vs 과업 중심 정책〉

구분	연령 중심 정책	과업 중심 정책
기준	법령·행정적 연령 구간 (예: 9~24세, 19~39세)	발달 및 전환 과업 단계
초점	같은 나이대라면 비슷할 필요가 있다고 가정 → 동일한 서비스 제공	같은 나이라도 상황과 준비 정도가 다를 수 인정 → 단계·상황별 다른 지원 제공
예시	청소년 : 9~24세 청년 : 19~39세	청소년 : 장래성 형성, 학업 관계 등 청년 : 진학, 직업, 독립, 자립 등
장점	행정적으로 빠른 집행	실제 변화와 맞춤형 필요 반영, 사각지대 해소
한계	연령만으로 개인의 상황 차이 설명 어려움	개인별 상황 반영을 위해 정책 설계, 조사와 노력 필요

- 청소년과 청년은 법령상으로 구분되어 연령 기준에 따라 각기 다른 정책 체계 속에 놓여 있음. 그러나 삶은 연속적이며,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과 청년기의 전환 과업은 서로 연결되어 개인의 성장 경로를 함께 형성함.
- 동일한 연령대라도 개인의 삶의 단계와 필요는 크게 다르며, 단순한 연령 구분만으로는 실질적 요구를 세밀하게 포착하기 어려움. 따라서, 청소년과 청년을 과업(Task)을 수행하는 주체로 보고, 발달·전환 과정을 연속된 하나의 생애 과정(Life Course) 속에서 지원하는 접근이 필요함.
- 성남형 생애과정 지원 모델은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과 청년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자신의 과업(Task)을 스스로 설정, 달성해 가는 동등한 주체로 바라봄.
- 이를 통해 ▲연령 확장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던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중복·단절 없는 체계적 정책 설계를 가능하게 하며,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실천적 과정 중심의 정책 구조화를 제안하고자 함.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SEONGNAM CITY YOUTH FOUNDATION

청소년기와 청년기, 발달과 과업의 차이

■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Development Task) : 정체성 확립 · 심리·사회적 성장

- 에릭슨(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따르면, 청소년기(12~18세)는 '정체성 대 역할 혼미(Identity vs. Role Confusion)'의 단계임.
- 이 시기의 핵심 과업은 **정체성 확립**으로, 청소년은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다양한 역할과 가치관을 탐색**함.
- 정체성 확립에 성공 시, 확고한 자아감을 형성하지만, 실패하면 사회적 역할에 대한 혼란과 부적응 경험할 수 있음.
-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은 **심리적 · 정서적 성장과 또래 관계 형성, 학업 및 진로 탐색**에 초점이 맞춰짐.

■ 청년기의 전환 과업(Transition Task) : 사회경제적 전환과 자립

- 청년기의 과업은 단순히 연령 구간으로 규정되지 않고, **사회경제적 맥락과 전환 경험**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음.
-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유예(Social Moratorium)** 현상은 교육 기간의 장기화, 취업난, 주거 불안 등으로 인해 성인기로의 진입이 늦춰지고 있음.
- 또한 청년기 삶의 경로는 과거의 전형적 패턴(교육-취업-결혼-출산)에서 벗어나, **개인의 선택과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거나 건너뛰는 비전형적 경로**로 변화되고 있음.
- 이러한 불안정성과 다양성은 'N포 세대'와 같은 신조어로 표현되며, **청년층이 겪는 사회적 압력과 과업 달성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줌.
- 청년기의 전환 과업은 교육 완료, 경제적 자립, 사회적 관계 형성, 주거 및 가족 형성, 시민 참여 등 **다차원적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함**.

〈발달 과업 및 전환 과업 단계의 이해〉

구분	발달 과업 (Development Task)	전환 과업 (Transition Task)
핵심 의미	심리 · 정서 · 사회적 성장 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내적 과제	교육, 고용, 주거 등 사회적 전환 단계에서 달성해야 할 제도적 · 사회적 과제
연령대	9~18세 (아동기-청소년기)	19~39세 (청년기 전체)
주요 과제	- 정체성 확립 - 또래 관계 형성 - 학업 · 진로 탐색 - 시민성 발달 - 심리적 회복탄력성 형성	- 교육 완료(졸업) - 경제적 자립 - 사회적 관계 형성 - 정서적 안정 · 자아 확립 - 경력 관리 · 시민 참여
과업 달성 주체	- 가족, 학교 등의 보호와 지지를 기반으로 진행	- 개인의 자립 능력과 사회적 · 제도적 지원에 따른 달성 여부 결정
결정요인	- 연령, 발달 수준 - 심리적 성숙	- 사회경제적 환경 - 제도적 기회 - 개인의 선택
특징	내적 발달과 정체성 형성 (심리 · 정서 · 사회적 성장)	사회 · 경제적 목표 달성 중심 (교육 · 고용 · 주거 등)
정책 지원 기준	연령을 기준으로 하되, 발달 수준에 따른 보완 적용	전환 과업의 성취 수준과 필요 지원 여부 중심

왜 과업 기준 지원이 필요할까?

■ 연령 정의 혼선과 한계

- 국회입법조사처(2021)에 따르면, **아동 · 청소년 · 청년의 연령 정의는 법령마다 달라 정책적 혼선을 초래**함.
- 이에 따라 정책 대상의 범위가 불명확해지고, 동일 연령대 내에서도 **지원의 불평등과 공백이 발생**함. 특히, 청년층은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입하는 시기로, **직업 · 주거 · 가족 형성 등 주요 과업의 이행 양상**이 개인별로 크게 달라 정책의 형평성이 약화됨.
- 최근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등은 **청년 세대의 “생애 이행 지연(Life Transition)”** 현상을 다층적인 불안정성으로 분석함. 이는 단순 연령의 구분이 청년의 삶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며, **정책 설득력과 현장 실효성 확보 모두에 한계를 드러냄**.

■ 청년 세대 이행기의 다양성과 과업 기준 지원의 필요성

- 청소년(9~18세)의 경우, 대체로 학업 · 진학 준비, 진로 탐색이라는 유사한 발달 과업을 수행하므로, 연령별 정책 지원이 일정 부분 타당함. 그러나, **발달 과업 지연이 발생할 경우**, 청년기에 더 큰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청소년기에도 개별적 맞춤 지원이 필요**함.
- 반면, 청년(19~39세)에는 **같은 연령이라도 처한 상황이 매우 다양**함.

① A 청년(24세, 미취업 상태)

구직 활동에 대한 압박감과 심리적 불안정을 동시에 겪음
→ “취업 지원, 정서적 안정” 필요

② B 청년(24세, 취업 상태)

취업은 했으나, 낮은 급여로 자립이 어려움
→ “직장 적응, 경력 개발, 주거 안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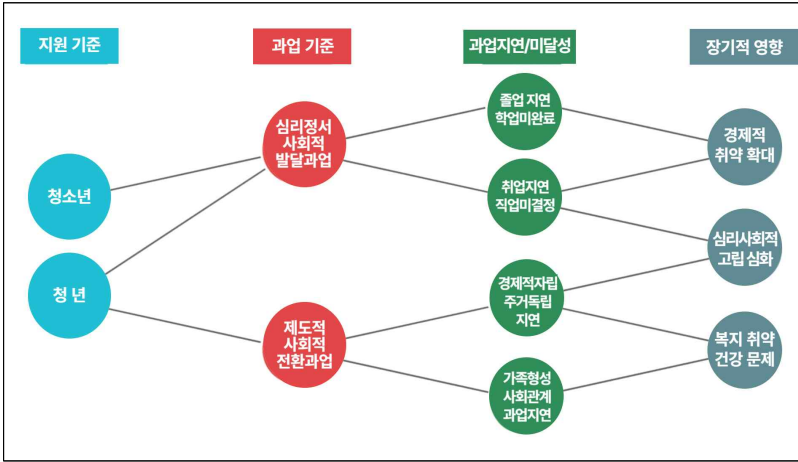
- 이처럼 동일 연령대라도 과업 성취 수준이 다르므로, 한정된 정책 자원을 단순히 연령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환 과업의 “단계(Gate)”에 따른 지원이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이 됨.

〈동일 연령임에도 과업 달성 정도에 따른 차이〉



출처: Google AI Image Generator

〈청소년-청년 과업 지원 시의 장기적 영향〉



과업 지원의 문제점과 파급효과

- 청소년과 청년의 주요 발달·전환 과업이 적기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는 단순히 개인의 지원을 넘어 **삶 전반의 불안과 사회적 위험** 누적으로 이어짐.
- 졸업, 취업, 주거 독립, 가족 형성 등 핵심 과업의 지연과 미이행은 장기적으로 **세대 간 빈곤·불평등의 고착화**와 **노년기 복지 사각지대 확대**로 연결됨(서울연구원, 2024).
- 특히 **청년층의 지연**은 개인 차원을 넘어 의료·복지 지출 증가, 사회적 고립 심화, 노동력 손실 등 **사회 전체의 비용 부담으로 확산**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 따라서 과업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며, 경제적 비용 증가-인구 감소-저출생 심화 등 국가·사회적 차원의 문제와 직결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성남형 청소년-청년 생애과정 지원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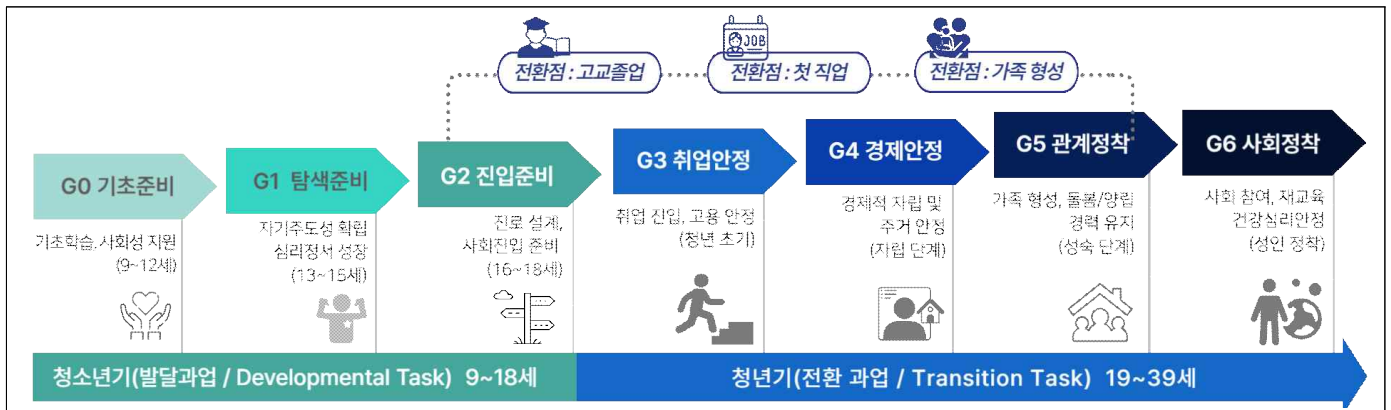
■ 청소년과 청년, 실제 삶의 변화 도모를 위한 지원

- 청소년기와 청년기는 단순히 특정 연령대를 통과하는 시기가 아니라,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주요 과업을 수행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복잡한 이행기**임. 따라서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은 연령의 칸막이를 넘어, **개인이 직면한 현실적 과업의 난이도와 필요성**에 주목해야 함.
- 이러한 **“과업 중심의 접근(Task-Based Approach)”**은 청소년에게는 발달 단계에 맞는 보편적 지원을 제공하고, 동시에 과업 지연이나 개별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다양한 삶의 과업에 직면한 청년 모두가 **주도적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 발판 마련**에 목적이 있음.

■ 과업 기반 생애과정 모델 : 연령을 넘어, 청소년과 청년의 삶에 집중하다

- 기존의 **연령 중심 서비스 체계**는 청소년과 청년이 겪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삶의 경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이에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은 **청소년의 발달 과업과 청년기의 전환 과업**, 즉, 삶의 실제 과업을 기준으로 하는 **「성남형 청소년-청년 생애과정 지원 모델」**을 제안함.
- 청소년기와 청년기는 서로 단절된 시기가 아닌 **연속적 과정**이며, 청소년기에 형성된 발달 역량은 청년기 자립·관계 형성 등 전환 과업의 성취로 이어짐. 따라서, **두 시기를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함.
- 본 모델은 **청소년기에 축적된 발달 역량을 토대로, 청년기에는 취업·주거·경제적 자립·가족 형성 등 실질적인 삶의 과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성남형 청소년-청년 생애과정 지원 모델〉



- 재단의 모델은 개인의 성장을 단순한 “단계(Level)”가 아닌,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Gate)”으로 정의하며, **G0~G6 단계를 지원 대상으로 설정**함

- 청소년기(G0~G2) : 발달 과업 중심(기초 학습, 진로 탐색, 심리·정서발달, 성장 등)
- 청년기(G3~G6) : 전환 과업 중심(취업, 경제적 자립, 가족 형성, 사회참여 등)
- 주요 전환점 : 고교 졸업, 첫 취업, 주거 자립, 가족 형성 등 핵심 과업

■ 단계별 내용 및 재단 서비스 연계(안)

단계		주요 연령	전환점	핵심 과업	주요 지원 방향	재단 서비스(예)
청소년 / 발달 과업 Developmental Task	G0 기초 준비	9~12세	초등 졸업	기초 학습 역량 형성 정서·사회성 발달	기초 학습 보완, 문화·예술 활동, 도래 관계 지원	- 방과후 아카데미 - 창의·문화 놀이 - 사회성 프로그램
	G1 탐색 준비	13~15세	중등 진학	진로 탐색, 자기 주도성 강화, 정체성 탐색·확립	진로 체험, 심리·정서·상담, 자치·참여 활동	- 청소년의회, 참여위원회 등 - 진로 캠프 - 청소년 도래 상담
	G2 진입 준비	16~18세	고교 졸업	학업 완료, 진로·직업 결정, 사회 진입 준비	진로 설계, 자격 취득 지원	- 진로·직업 특강, 체험 - 특성화 멘토링 - 진학, 진로 프로그램
청년 / 전환 과업 Transition Task	G3 직업 안정	19~24세	첫 직업 활동	취·창업 등 진입 및 초기 직무 적응	직업 적응 코칭, 취·창업 역량 강화, 권익·금융 교육	- 청년 취업 특강, 멘토링 - 창업 프로그램, 동아리 - 권익 증진 프로그램
	G4 경제 안정	25~29세	자립·주거 독립	경제적 자립 기반 확립, 주거 안정	금융 관리, 주거 지원, 자립 역량 강화	- 금융·재무 상담 - 생활 자립 관련 교육 - 문화프로그램
	G5 관계 정착	30~34세	가족 형성	가족 형성 및 돌봄, 일·가정 균형	부모 교육, 가족관계 지원, 돌봄 지원	- 돌봄 지원(아이 돌봄) - 부모 역할교육 - 도서관 등 문화프로그램
	G6 사회 정착	34~39세	사회참여	경력 유지·전환, 시민 참여, 건강·심리 안정	재교육·리스킬링, 사회참여·리더십, 건강·멘탈케어	- 평생학습 연계 - 사회공헌 프로젝트 - 강사 양성 등 리스킬링
공동 지원 단계		전 연령	전환 지연 및 위기 상황 대응	위기 대응 및 지속적 안전망 확보	심리·정신건강 지원, 긴급복지·생활 지원, 자립 지원	- 상담복지센터, 상담실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마음건강 지원사업 - 청년 자립 지원 - 은둔 고립 청소년·청년사업

* 상기 명시된 연령은 예시로서, 성남형 모델은 이러한 법적 한계를 보완하는 실천 모델로, 다양한 연령에 적용할 수 있음

- 성남형 청소년-청년 통합 생애과정 지원 모델은 **청소년의 발달 과업과 청년의 전환 과업을 하나의 연속된 여정으로 설계함**.
-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환 지연이나 위기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현장에서의 사업 운영 시, 프로그램 기획자가** 청소년·청년의 성장 단계와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는 **전략적 개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함(예: G1단계 청소년→진로 탐색 프로그램, G4 단계 청소년→금융교육 및 자립역량 강화).
- 본 모델은 고정된 절대 기준이 아니라, **실제 현장과 개인의 다양성을 반영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살무 기반의 체계임.

성남형 청소년-청년 생애과정 지원 모델의 의의와 향후 발전 과제

- 최근 국내외 학계와 정책에서는 연령 구분이 아닌, **삶의 이행 과정과 주요 과업을 기준으로 한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성남형 청소년-청년 생애과정 지원 모델은 이러한 흐름에 부합 하며, **청소년과 청년을 하나의 연속된 대상으로 설정**하고, **청년기의 전환 과업을 세분화하여 현장 적용 가능한 체계적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도적 의미를 가짐.
- 향후에는 지속적인 보완과 실증 연구를 통해 **표준화 수준을 높이고**, 세분화된 과업 달성 지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존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본 모델은 **생애 과정별 필요 역량을 반영한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서비스 설계**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과 청년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임.

참고문헌

정세정 외(2019). 생애주기 관점의 수요자 중심 청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외(2022).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전략과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문길 외(2024). 청년 이행경로 변화의 파급효과와 인구사회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금선 외(2023). 서울시민의 생애과정 변화에 따른 빈곤 위험 대응방안. 서울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삶의질학회(2023). 생애주기별 삶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 구축 연구. 통계청
 조성호 외(2024).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 통계청
 OECD (2019). Young People's Transition to Adulthood. OECD
 OECD (2024). Youth Policy Toolkit. OECD